

일병목회강좌 이사야 1강

정리 : 최희영 목사

1. 서곡(Overture) - 변론하자, 1장

- ① 이사야의 전체 주제 및 핵심 된 선언 : 하나님의 꿈, 하나님의 비전
 - 60-62장의 “일어나라 빛을 발하라”, “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”는 표현에서 두드러진다.
 - 이 꿈이 하나님의 주권과 성실하심과 능력만이 아닌, 설득과 경고와 책망과 약속하는 것들로 목적되고 있다.
 - “변론하자. 너희 사정을 변명해보라. 나는 내 목적과 뜻하는 바를 너희에게 말하겠다.”
 - 우월한 권력으로 강요하고 통제하거나 법대로 판결하려는 것을 목적하지 않고, 이스라엘 백성과 후세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려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과 증거이다.

2. 인문학: 성경 이해의 단초

- ① 문학
 - 문학의 최고의 주제는 인간이라는 존재와 가치에 대한 질문이다.
 - 희극으로는 깊이를 다룰 수 없어서 비극으로 갈 수 밖에 없다.
 - 우리가 갈구하는 갈망의 크기는 너무나 크고 깊는데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답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괴리 탓이다.
 - 결국 우리가 공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다.
- ② 역사
 - 역사는 이해할 수 없고 결과될 수 없는 것으로 결과되어 이어져 왔다. 역사에는 의식이 없다.
 - 인과율로도 설명되지 않고 해석할 수도 없어, 단지 관찰할 수 밖에 없다.
 -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, 결국 운이 좋아야만 한다는 답을 낼 수 밖에 없다.
- ③ 철학
 - 생각은 왜 하는가, 진리는 무엇인가, 인간의 가치는 무슨 단어와 내용으로 걸러낼 수 있는가에 대해 “생각하는 법”이다.
 - “생각하는 법”은 생각의 차원, 인간의 고급한 안목과 분별과 가치의 차원을 말한다.
 - 인간의 질문, 가능성이나 경험과 희망을 대변하고 있지, 자신의 존재와 기능과 능력이 가지는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.
 - 상상도 그 범위를 기반으로 펼쳐지는 것이다.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.
 - 기적을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이다.
 - 기적의 가치는 초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,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행사하시는 - 자연과 마찬가지로 -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.
 - 기적은 다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감동케 하심으로,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이다.
 - 기적은 시공간에 들어와야만 한다.

3. 통섭, 그리고 이사야

- ① 통섭적 고찰
 - 이사야서는 역사적 멸망과 회복과 하나님의 꾸중과 궁극적 약속이 있는 역사서이다.

- 역사는 말이 되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이해의 범주보다 더 큰 사건들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.
- 이스라엘에 가장 큰 유익을 남기는 기간은 바벨론 포로기간이다.
- 이스라엘이 잡혀갔을 때 있었던 자들도, 잡혀간 자들도, 돌아온 자들도, 살아남은 자들도, 예수를 본 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.
-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데까지 이해할 수 밖에 없었다. 나머지는 믿음,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열어놓아야만 했다.
- 내적 고집을 종교라는 명분으로 끝까지 고집하는 종교심을 경계해야 한다. 기독교 신앙이 자기가 공감하고 확인한 것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. 하나님이 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.

② 세 시대의 이사야

1장 - 39장	패망의 역사적 사건	제1이사야
40장 - 55장	구원과 회복의 약속	제2이사야
56장 - 66장	종말론적 궁극적 승리의 약속	제3이사야

- 세 시대의 구분의 필요성 : 멸망하는 역사와 회복에 대해, 또 돌아와서는 각각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하나님이 뭐라 하셨으며, 무엇이 약속되었으며, 궁극적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.
- 그때 그때의 문맥이 있어야 한다. 이스라엘의 패역과 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의 멸망이라는 역사의 문맥이 있어야 한다.
-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시며, 이 역사가 왜 필요하며, 거기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 백성에게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가 실감나게 사실로 다가오는 것이다.
- 어느 시대를 살게 하고 어떤 도진 앞에 세우며, 무엇을 담으려 하시는가 묻고 생각해야 한다.
- 예수의 십자가가 구체적이었던 것처럼,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날들이라고 현실에 묶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.
- 앞뒤 없이 문맥 없이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설교한다고 한다.

③ 역사를 산다는 것

- 일본 개화기의 혼란이 던진 질문 : “이 싸움을 왜 하는가?”, “우리 인생은 뭐냐”.
- 세상이 달라졌다. 칼로 답이 되고 칼로 질문을 하던 데서 문맥이 넓어지고 더 많은 내용이 담기는 것이다.
- 부흥시대가 하나님이 세상과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담아내는 것이 최고였다면, 지금은 “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담으려고 하는가?” 물어야 한다.
-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일상, 시원치 않은 일상에서는 도대체 어떤 가치로 우리를 몰아가는지 생각해야 한다.
- 단어를 만들어야 한다. 경험과 사건이 없으면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고, 단어가 없으면 개념을 설명할 길이 없다.
- 그릇만 커지지 말고 그릇이 커진 만큼 더 담긴 내용으로 가는 것이다.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역사를 시간과 공간과 살아보는 기회를 주신다.

④ 기적이 절실한, 그들과 우리의 현실

- 우리 인생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기간에 벌어지는 것들이 일을 한다. 잘했을 때뿐 아니라 잘했을

때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. 잘못된 것도 잘한 것 이상으로 일을 만든다.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는 증언이며,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이사야이다.

4. 소명 - 둔하게 하라, 6장

- ① 이런 선지직이라니!! - 가도 그들이 못 알아 들을 것이요, 그 기간은 그들이 망할 때까지이다.
- ② 예수님에 의해 성취가 증언됨 (마13:1-17)
 - 이사야의 소명은 그가 가지고 간 내용을 전파해봤자 알 수 없는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며, 그 성취가 예수에게서 일어났다고 말한 후 제자들에게 그 성취를 본다고 말하신다.
 -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온 인류의 현실이며 진실이었다.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았다.
 - 예수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를 넘어서는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다.
 - “너희는 모른다. 그러나 내가 와서 구원을 이루겠다.”
 - 돌밭과 떨기 나무에 뿌린 씨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씨임에도 밭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다.
 -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도 회개하지 않았다.
 - 이사야 1장-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망가졌고 어떻게 이야기를 듣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.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할 만큼의 경지에 온 것이다. 새들이 먹어버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다.
 -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약속의 결실을 만들어 낼 것이다.
 - 이들의 배신과 거부가 모든 이방의 구원으로 결실(30배 60배 100배의)할 것이다.
 - 이들이 옥토여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, 가시떨기나 돌밭이었기 때문에 결실한 것이다.
- ③ 이해 밖의: 기적
 - 씨 뿌리는 비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맞지 않는다. 여기에 인과법칙에 의한, 예수를 믿어서 결실이 됐다고 말하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다.
 - 잘하면 잘한 보상을 받고 못하면 못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교착되지 말아야 한다.
 - 저항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온 인류에게 넘쳤다. 기독교의 신비다.
 - 모든 것을 모순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대척점에 있게 두지 않고 다 묶어내는 예수로 말미암는 기적, 구원,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다.

5. 옥토와 결실, 성육신

- ① 옥토와 결실
 - 우리를 옥토로 만들기 위해, 그리고 그 옥토에서 결실하게 하러 오셨다.
 - 텍스트가 컨텍스에 들어온다. (컵에 담긴 유자차)
 -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문맥 속에 예수가 들어오심으로써, 우리가 그를 몰라보았으나 하나님이 몰라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옥토로 고쳐 결실하신다는 것을 본 구체적 역사이다.
 -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, 그 사건이 사실이게 하심으로 우리를 고쳐 놓으셨다. 우리가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물이라고 확고하게 가지도록 역사를 가졌다.
 - 우리와 우리의 생애 우리의 실존에다 당신의 약속과 일을 담고 계신다. 결실할 수 없는 땅에 씨를 뿌려, 씨가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결실케 하여 그 밭이 꽃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하신다.
- ② 꽃밭, 새로운 정체성
 -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. 우리라는 존재의 이름이 아무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. 옥토에 맺어진 결실은 결과물일 뿐 아니라 밭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다.

- 컵이 컵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유자차가 되는 것처럼,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우리 안에 담으시며 만드시는 일이다.
- 예수가 하신 일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변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성육신의 방법으로, 이 씨가 받을 바꾸고 결실케 하여 그 받을 그 결과물로 명명하게 만드는 명예를 주었다는 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약속하고 있다.
 -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. 기적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체라고 말하는 것이다. 역사 속에, 현실 속에, 지금의 조건 속에,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다.
- 씨 뿌리는 비유가 다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하고 사람을 구별하고 마는 것이라면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능력 위주로 돌아가고 결과로 자신을 확인하는 데로 돌아간다.

③ 믿음의 성경적 용법

-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(롬1:16). 믿음은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. 예수를 '믿는다'고 말할 때 '하나님의 능력'이라고 이해해야 한다.
 - 이 하나님의 방법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믿음이며, 우리의 믿음은 기댈만하고 가치 있는 데에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.
- 구원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며, 구원 이후 믿음이 크다.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바꾼다.
 - 우리는 길가, 돌밭, 가시떨기에 있었던 정도인데,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옥토로 만든다. 우리가 바뀐다. 믿음이 크다. 신뢰와 우리가 아는 믿음이 그 후에 생긴다.
 -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어린 것은 다르다.
-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, 우리의 실패, 후회, 한숨, 분노는 우리가 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들이다.
 - 성경의 수사법은 역설이다.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. 역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승리와 영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다. 우리가 아는 방법, 상상, 능력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고 분명하다.
 -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,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믿음을 키우시는 모든 과정에서,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 도전하는 일상에서 넘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크다.
 - 하나님이 이런, 고민하고 울고 불고하는 과정을 사용하는 것은 나를 나 되게 하려는, 내가 실제로 명예와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려는 최선의 방법이다.

④ 역설과 반전: 기독교

-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창조야 말로 최고의 역설이며,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반전이다(롬4장). 우리가 싫어하는 모순, 절망이 창조와 부활의 권능 앞에 모든 것이 다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. 이것이 이사가야 증명하려는 것이며,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그의 백성을 기르는 과정이다.
 - 복 받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분노를 거쳐 지나가야 한다. 사춘기와 같은 정체성을 묻고 확인하기 위한 시기와 그 시기의 반발이 꼭 필요하다. 시편에는 분노의 시가 더 많다. 이런 것도 신자에게 당연한 과정이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.
 - 기독교에 대한 안목, 분별, 통찰이 있어야 한다. 성경이 문맥(구약은 시간, 신약은 경우)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. 기독교는 말이 안 되는,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종교이다.
 - 우리는 새로운 눈을 떠서 새로운 색깔, 새로운 개념, 새로운 약속, 새로운 질서를 보는 것이다. 눈을 뜬 것만 감격해서 실로암에 주저 앉아버리지 말라. 지나와 일상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정황과 현실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체적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. 성육신에 동참하라.